해외출장(일본) 요약

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과제코드 : 2015-ER-05
과제명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학술연구 용역(2차)
연구책임 및 자료제공 : 박현찬, 김태호
작성일 : 2016년 10월 7일
게시요망일 : 2016년 10월 7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일본 경관계획 사례(도쿄/요코하마/오사카/고베) 답사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 최근 서울시에서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경관체계인 일본사례를 조사·검토하고자 함

2) 출장 내용

(1) 니켄세케이 연구소(NIKKEN SEKKEI Research Institute) 인터뷰

-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의 중복성 관련
  - 개발제도, 경관시뮬레이션, 심의제도 등 '경관사전경관심의'가 있어 경관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함. 재개발촉진지구, 도시재생특별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고도이용지구, 특별용적률적용지구는 경관사전협의대상에 포함됨
- 경관심의에 대한 인식
  - 경관법/제도는 다수의 규제가 따르나, 새로운 경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시민과 실무자는 계획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획내용을 준수하려고 노력함
- 경관심의를 위한 도서마련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관련
  - 설계자는 별도 심의로 추가 검토 및 도면 작업이 요구되면, 건축주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고, 해당 요청은 수락됨

<니켄세케이 연구소 인터뷰>

(2) 요코하마시청(横浜市廳) 경관조정과 인터뷰

- 경관조정과의 담당업무
  - 3개구역의 중점지구에 대한 각각의 경관 담당과가 있으며, 업무총괄은 시에서 담당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미나토미라이21 신항지구, 관내지구)
- 경관심의
  - 경관사전협의제도를 통해 경관법, 경관조례를 뒷받침함
  - 최근 건축심의와의 통합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됨
- 타 지자체와의 경관협의체 구성
  - 경관협의체는 도쿄, 가나가와 등 20여개 지자체의 경관관련 과장급 이상 위원으로 구성됨
  - 타 지자체 경관관련부서와의 경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함

<요코하마시청 경관조정과 인터뷰>

(3) 일본 경관계획 현장조사

도쿄 시부야(Shibuya)

- 도시재생특별지구 재생사업추진에 있어 공공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계획을 반영. 기반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기성시가지에서 민간부문을 통한 도시재생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도쿄 만세이바시역(万世橋駅), 로그로드(Log road)

- 고가철도의 선로를 따라 지하공간을 상업시설로 재생하는 사업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음. 역사적인 공간을 재생할 경우, 과거의 흔적과 역사를 재현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형성함. 서울의 경우도 경관사업의 유형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음

요코하마시 이세자키지구(Isezaki), 야마테지구(山手町)

-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 가로시설물 정비 등 거리경관을 통합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관형성지원사업이 필요

토어로드(Tor Road)

- 마을만들기 협의회 구성, 공공에서의 거리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현란한 광고물 지양, 쓰레기 없는 거리, 녹색공간조성)

이 융화되어 토어로드지구 경관을 형성함

기타노 이진칸지구(北野異人館街)

- 항구도시 고베의 역사적 요소를 거리조형물로 배치하고, 전통건축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역사도시로의 상징성을 부여함. 구릉지와 인접한 지역은 '도시경관형성지역'으로 경관관리를 위해 노력함. 전통건축물의 유지·보존 및 상업시설로의 활용, 투어버스 운행 등 관광명소화를 위한 노력이 장기간에 지속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박현찬 선임연구위원(2149-1079), 김태호 위촉연구원 (2149-1164)